

‘인종’의 한국 문화연구내 배치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전규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들어가면서: 문화연구의 위기와 ‘인종’의 화두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내 문화와 문화연구라는 단어가 일종의 담론적 과잉 상태를 이룬 점에 비춰볼 때, 후반 들어 문화연구 위기의 담론이 갑작스럽게 힘을 발휘한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이것이 한국 언론학계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다. 문화연구가 출발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초부터 한계와 대안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미국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들이 문화비평에는 포함될지언정 문화연구적 실천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그로스버그(L. Grossberg)의 평가는 이러한 흐름을 압축하고 있다. 문화연구가 치열한 정치성과 고도의 이론성, ‘급진적 맥락성(radical contextualism)’의 적절한 절합에 기반해야 하는 바, 상당수 연구가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리하여 이

* 본 연구는 1997년도 강원대학교 교내 기성회 연구비 지원을 받아 행해진 것임.

1) 로렌스 그로스버그(1997), 「나의 문화연구: 정의, 기획 그리고 지구화의 문제」, 《언론과 사회》 18호, 125-137쪽.

론과 정치성·맥락성의 회복을 문화연구 위기탈출의 단서로 제시한다면, 베네트(T. Benenett)는 이론적·실천적·제도적 방식에서 문화연구에 정책을 ‘끼어넣는 것’을 그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한다.²⁾ 또한 길로이(P. Gilroy)가 문화연구 제도화의 타결책으로 ‘영국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착각한 ‘민속 절대주의(ethnic absolutism)’의 해체를 강조한다면,³⁾ 맥로비(A. McRobbie)는 경제 결정론적인 ‘포스트모던 이전 맑스주의(pre-postmodern Marxism)’와의 확실한 단절을 강조한다.⁴⁾ 이러한 태도는 다시 비판이론으로의 회귀를 탈정치화, 분과 학문화한 문화연구의 출구로 고집하는 애거(B. Agger)⁵⁾와 정면으로 충돌된다.

이처럼 서구 연구자들이 문화연구에 대한 반성에서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사회내 문화연구 위기의 담론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언론과 사회》, 《문화과학》, 《현대사상》 팀을 통한 최근의 문화연구 논의는 그 대표적 작업이다. 여기에는 앞서 지적한 문화연구 일반의 성찰적 경향성뿐만 아니라 ‘IMF’라는 시대 상황적 요인과 인문학의 위기라는 전학문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 그리하여 논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서구이론 중심적이고 한국사회의 구체적 역사와 ‘절맥’된 인문학의 위기를 냉철히 성찰하는 태도가 요청되며, 문화연구에 대한 진단과 재기획

2) Bennett, T.(1992),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in L. Grossberg, C. Nelson. & P.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23-37.

3) Gilroy, P.(1992), "Cultural Studies and Ethnic Absolutism," in L. Grossberg, C. Nelson. & P.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187-298.

4) McRobbie, A.(1994), *Postmodernism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 London: Routledge.

5) Agger, B.(1992), *Cultural Studies as Critical Theory*, London &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도 바로 그러한 맥락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내 문화연구가 “문화현실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 영토를 따라 그것을 각각의 조건대로 포획하고 변위·변형시키”지 못하고 “이론/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문화현실을 거기에 복종시키려”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은 문화연구 재배치의 방향을 잘 암시한다.⁶⁾ 한국사회의 구체적이고 차이는 문화현실을 이론 일반에 끼워맞춰 설명하거나 비판해온 그리고 미시·추상적 이론화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시·정치적 실천성을 간과해온 최근 문화연구작업에 대한 내재적 비평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이는 문화연구를 언어와 기호의 의미작용, 텍스트의 문제로 한정시켜 온 경향성에 대한 그로스버그의 비판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문제와 한국 문화연구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다. 최근 들어 국내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인종에 대한 언급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종(주의)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적 논의나 실제분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사회내 인종을 논하는 것이 문화 이론적·정치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어 있지도 않다. 맥락에 대한 설명없이 갑작스레 등장한 인종의 기호는 따라서 국내 문화연구의 이론적 허약성을 드러내는 또다른 징후가 된다. '인종'의 범주는 1990년대 후반 한국 문화연구 수행에 있어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로스버그는 미디어 텍스트에 나타난 인종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비록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문화연구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과가 너무 뻔하고, 이론적으로 새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인종주

6) 고길섭(1997), 「문화분석 글쓰기론: 생성·비판적 실천과 탈 현대적 지도 그리기」, 《문화과학》 12호, 153쪽.

의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그 존재양식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연구적이라고 주장한다.⁷⁾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위기를 넘어 한국 문화연구의 비판·생성적 재구성을 모색함에 있어 인종의 화두, 인종주의의 문제설정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고집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형해화한 기표 수준을 넘어, 그 내용을 이론적으로 살찌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화연구와 인종(주의) 이론의 접속을 기획하면서, 이 논문은 인종이라는 지식·담론이 한국 문화연구 영토에 배치하게 된 경로와 조건을 역사적·반성적·상호학제적으로 추적해보고자 한다.

II. 사회과학 지식 영토내 ‘인종’ 담론의 계보학

1. ‘인종’, ‘타자성 신비화’의 특수한 코드

인종의 최근 담론은 서구에 기댄 한국 문화연구의 이론적 종속성, 반주변부 문화 지식인들의 식민지적 글쓰기의 징표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본 연구자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인종의 용어가 한국사회내 미디어·문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유용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보다 기본적으로, 인종주의는 과연 한국 사회 구성체와 문화, 미디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체적 미디어·문화 영토를 매개로 한 인종 이론과 문화연구 실천간 접속에 궁극적 관심을 둔다. 달

7) 로렌스 그로스버그, 앞의 논문, 127쪽.

리 말하자면, 미디어와 인종 이론을 한국적 문화연구 실천을 통해 새롭게 연결시키고자 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인종’이 상식적 담론을 증가시키고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며, 그 담론과 지식이 마침내 한국 문화연구 영토에 배치하게 된 보다 광의의 역사·이론적 조건을 따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인종개념의 한국 문화연구적 배치에는 이를 가능케 한 맥락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앞을 근거할 때 비로소 최근 국내 문화연구자들의 인종관련 글쓰기의 의미와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인종의 역사적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이 기호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1990년대 후반 한국 문화연구 영토에 끼어들게 되는가?

푸코의 계보학(genealogy)은 이처럼 당연하게 사용되는 인종개념의 뿌리를 찾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 된다. 푸코의 이론은 국내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열풍이 멈춘 지금 그를 언급하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 정도가 되었다. 미디어·문화 연구영역에서도 푸코의 권력과 담론개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막상 그의 계보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구체적 분석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문제를 풀기 위한 서구이론의 적용이 아닌, 그야말로 “이론 따로, 실천 따로” 식의 논의에 그친 느낌이 크다.⁸⁾ 아무튼 푸코는 현재 당연시된 진리, 변함없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그 과거를 해부하고자 했다. 현재의 계보·기원·발생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며, 니체로부터 이어받은 이러한 노력을 계보학이라고 이름붙였다. 그 이전 고고학에서 한발 나아간 계보학은 진리의 축과 권력의 축 그리고 윤리의 축에 기초한다.⁹⁾ 그리하여 특정 ‘앞

8) 이구표·이진경 외(1997), 『프랑스 철학과 우리』, 당대, 7쪽.

의 의지'가 '권력'과 일종의 공모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 현상에 대한 윤리 담론적 기술체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름아닌 계보학이 되는 것이다. 푸코는 앞의 의지가 특정 담론을 생산해내는 '긍정의 힘'과 그 문맥 그리고 변환하는 문맥의 핵을 구성하는 힘들의 역학관계에 관심을 둔다.¹⁰⁾

담론의 질서를 낳은 비담론적·제도적·물리적 환경으로 빠져나간 계보학은 이처럼 지금까지 부동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을 혼동시키려 한다. 지금까지 '진정한 지식의 이름'으로 행사해온 과학의 특권에 시비 걸며, '제도화된 담론'에 의해 예측된 '국지적 앎'들을 새로이 회귀시키고자 한다. 푸코의 말을 빌리지만, "계보학이 싸워야 할 것은, 소위 과학적이라고 간주되는 담론이 갖는 고유한 권력의 효과"이다.¹¹⁾ 특정 지식을 보편과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권력 의지'에 대한 비판적 탐색인 셈이다.

계보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반과학이다... 차라리 이것은 앎들의 붕괴이다. 한 과학의 내용이나 방법·개념들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 사회와 같은 한 사회 안에서 형성된 한 과학적 담론의 기능과 제도화에 관련된 중앙집중적 권력의 효과에 대항하는 붕괴이다.¹²⁾

이러한 계보학은 '인종' 담론·과학의 역사를 따져보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 된다. '인종'은 특정한 역사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 지구상의 호모 사피엔스를 자연스러

9)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역(1990),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나남, 8쪽.

10) 미셸 푸코/ 이정우 역(1993), 『담론의 질서』, 새길, 137-138쪽.

11) 미셸 푸코/ 박정자 역(1990),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27쪽.

12) 미셸 푸코, 앞의 논문, 26쪽.

운 집단서열에 따라 분류하려는 유럽의 유형학적 사고양식으로서 싹트기 시작했다. 분류학적 범주로서 인종이라는 단어가 사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몽테스키외, 볼테르, 칸트, 흄¹³⁾을 비롯한 18세기의 서구 사상가들이 모두 인간집단간 차이를 설명할 목적으로 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당시 인종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대중의 인식적 기초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다만 이때 들어 일종의 과학적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을 따름이다. 요컨대 합리주의적·과학적 실증주의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정서적 담론을 '설명하기' 위한 로고스적 개입에 다름아니었다.¹⁴⁾ '안정되고 순수한 인종적 유형'이라는 개념은 다윈에 의해 자연선택적인 힘에 의해 영향받는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종(species)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는 다시 스펜서와 같은 사회학자에 의해 채택되면서, 원시적 단계에서 문명화된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 집단의 적응 정도를 구분짓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회 다윈니즘을 통해 생물학적 개념에서 사회학적 용어로의 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종적 우월성은 이제 문화적 우위의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며, 인종간 혼합은 곧 우월인종의 퇴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화적 믿음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된다. 인종에 관한 사회과학적 앎의 체계, 담론의 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인종'은 이처럼 보편적·절대적 개념이 아니다. 근대 유럽이라는 특

13) 흄은 1770년에 쓴 글에서 백인을 제외하고 문명화된 민족은 찾아보기 힘들며, "니그로와 (대략 네 개 혹은 다섯 개에 이르는) 다른 족속들은 백인에 비해 태생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적고 있다. Forbes, J. D.(1990), "The manipulation of race, caste and identity," *The Journal of Ethnic Studies* 17: 4, p. 8에서 재인용.

14) Juan, E. S.(1992), *Racial Formations/Critical Transformations*, New Jersey & London: Humanities Press, pp. 8-10.

수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물이며, 서구 근대 이성주의, 계몽주의적 최종 산물이다. 푸코식으로 말하자면, 낯선 타자들을 분류·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인의 특수한 앎의 결과물이며, ‘그들’을 상대로 발휘된 지식생산의 수단이자 ‘앎의 의지’의 효과가 된다. 유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타 영토의 여러 민속 집단들을 역사와 문명의 이름으로 호명해내고, 그들을 지식 체계내에 질서정연하게 끼어넣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타자성의 신화적 논리(mystifying logic of Otherness)’가 바로 인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인종’은 의미화의 분범체계로서 일종의 코드(code)가 되기도 한다. ‘백인’, ‘흑인’ 그리고 이후 추가된 ‘황인종’과 같은 기표가 세계내 다양한 인간들에게 집합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차적 의미 외에 바르뜨가 말한 이차적 의미(즉, 이데올로기와 신화) 생산까지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차이나는 피부색의 상호 배타적이고 서열화된 범주에 따라 분류되며, 그들의 정치·경제·문화적인 경험들도 이와 같은 코드에 따라 규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타리는 사람들을 흑인/백인의 범주로 환원하려는 것은 유럽 동일자의 선입관, 즉 “이원론적 환원과정을 통해 우리의 권력을 그들에게 행사하려는 욕구”로 설명한다.¹⁵⁾ 이 특수한 앎의 유형은 유럽 식민주의와 세계 체제화하는 자본주의 권력 그리고 그 인식적 토대가 된 오리엔탈리즘의 강화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범주로 확대되어 갔다.

그렇다고 해서 타자를 피부색에 따라 분류, 설명하는 지식/권력적 효과로서의 인종이 일방적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며, 정치·경제적·지적인 맥락에 따라 부침을 계속하였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 1930~40년

15) 펠렉스 가타리/윤수종 역(1998), 『분자혁명: 자유의 공간을 향한 욕망의 미시정치학』, 푸른숲, 227쪽.

대까지만 해도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 '인종'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과학적 용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1937년에 나온 한 보고서는 인종적 설명을 '일부 순진한 백인들'의 반계몽적 태도로 거부하였다. '인종'은 1960년대 중·후반 뉴욕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지에서 폭동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주류학계에서 비로소 분석적 용어로 인정되었다. 정치·경제적 상황변화가 파크(R. Park), 알포트(G. Allport), 글레이저(N. Glazer) 등과 같은 사회학자들이 '인종'에 관한 앎의 의지를 갖게 된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인종의 범주는 이처럼 사회내 소수집단의 특수한 공간적, 생활 양식적 특성이나 문제점들에 관한 앎의 개입을 통해 그 과학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인종은 이제 다원적 사회에 실재하는 "특정한 생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구성원들의 집합"¹⁶⁾으로 그 사회과학적 설명력을 획득한다.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언어적·종교적·문화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집단이 인종이며, 타자에 의한 명백한 구분, 구성원 스스로의 차별성 인식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기초한 공유된 생활방식은 인종 집단구성의 세 가지 조건으로 꼽힌다. 한국 문화연구내 인종담론은 바로 이러한 물리적·지적인 조건을 그 배경으로 한다.

2. '인종'과 계급에 대한 맑스주의 논쟁

그러나 '인종'의 용어가 1990년대 후반 한국 문화연구 영토로 들어 오게 된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우선 영국(혹은 그후 미

16) Smith, M. G.(1990), "Pluralism, race and ethnicity in selected African countries," in Rex, J. & D. Mason(eds.),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92.

국) 문화연구 전통을 거치게 되고, 아울러 계급과 인종을 둘러싼 맑스주의 논쟁을 간접적으로 경유하기 때문이다. 사실 문화연구와 좌파 인종 이론은 1980년대 영국이라는 맥락속에서 긴밀한 접합을 이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좌파 인종이론은 1980년대 영국 문화연구의 방향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홀(S. Hall)의 인식은 영국사회내의 심화되는 보수 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실천적 관심과 더불어 계급과 인종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관심에 이중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종' 개념의 계보학적 추적은 이제 맑스주의 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사실 명확히 개념화되지 않은 상태의 용어사용이 문화이론의 발전을 방해한 한 가지 이유가 된다면, 연구자들이 그 명확화를 위해 미디어·문화 연구의 제한된 경계를 넘어 다성적 영토로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디어·문화 연구자들은 자본과 계급의 설명을 위해 맑스주의와 접속하고, 정체성과 욕망의 이해를 위해 정신분석 혹은 '분열분석'과 만나며, 텍스트 분석을 위해 기호학, 구조주의와 접속하는 등 상호학제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국내에서 쓰여지기 시작한 인종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앞서 살펴본 인종범주의 역사적 문맥뿐만 아니라 영국 문화연구의 한 지층을 이루는 계급과 인종의 이론적 대결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다.

전술한 과정을 통해 서구 사회학계에는 1960년대 들어 '인종의 사회학(sociology of racism)', '인종관계 연구(study of race relation)'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게 된다. 다원적 사회론, 합리적 선택 이론, 사회생물학(sociobiology), 베버주의, 맑스주의, 정체성의 심리학적 이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다

루고 분과 학문별 차이나는 관점을 지녔으며, 문제에 접근하는 추상성의 수준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리하여 상호 보충적이기도 했지만,¹⁷⁾ 서로 심각한 의견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인종을 사회 계층화의 독립된 측면으로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인종을 지위(status)나 세력(prestige), 사회계급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계급과 인종 범주의 선차적 중요성, 결정성, 혹은 자율성을 둘러싼 맑스주의와 비맑스주의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맑스주의 내부의 이론적 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학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1980년대 영국 사회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종 대 계급의 논쟁은 그 주변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던 문화연구 전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콕스(O. C. Cox)와 마일즈(R. Miles)는 계급의 결정성을 강조한 대표적 맑스주의자로 꼽힌다. 그 이전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인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일종의 비가시화 상태에 머물렀다 하겠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콕스는 현대사회의 인종문제를 자본주의의 기원 및 발전과 연계시킨 최초의 맑스주의 (흑인) 사회학자로 꼽힌다. 그는 인종이 도덕적인 문제도, 경제적 구조의 문제와 별개의 카스트(caste)와 같은 독자적 신분제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직접적 효과이자 사회내 계급구조와

17) Rex, J.(1986), "The role of class analysis in the study of race relations - a Weberian perspective," in Rex, J. & D. Maxon(eds.),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4-83.

18) 로빈슨은 맑스주의가 인종적으로 구조화된 현실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없었던 한계와 관련하여, 이를 맑스주의의 유럽 중심주의적 성향 때문으로 풀이한다. Robinson, C. J.(1983), *Black Marxism: The Making of the Black Radical Tradition*, London: Zen Books.

밀접히 맞물린 이데올로기적 현상이며, 따라서 인종주의 연구는 곧 자본주의 연구가 된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인종에 관한 맑스주의 학자들의 인식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 ‘인종’은 근대/유럽/식민 정치/자본주의가 남긴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 정의되며,¹⁹⁾ 분석이나 설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비과학적 용어로 거부된다. ‘흑인’ 또는 ‘백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인종적 범주화(racial categorization)’를 통해 계급을 비롯한 사회 현실을 ‘인종화하는 과정(the process of racialization)’의 오류를 낳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종은 분석대상이 아니며, 주된 관심은 ‘인종화’의 이데올로기 과정에 모아진다. 즉 인종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사회 관계와 실천, 집단에 인종적 의미를 확장시키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정에 비판적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 전통 맑스주의 입장이다.

마치 ‘인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해서 사회 과학자들도 ‘인종’이라는 용어를 계속해 사용한다면, 그들은 이데올로기 구성물에 불과한 것에 분석적 지위를 부여하는 죄를 범하는 꼴이 된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인종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그보다는 특정한 역사적, 물리적 맥락하에서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는 인종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²⁰⁾

인종적 차이란 일종의 허위 의식에 불과하며, 인종 관계나 갈등은 보다 근원적이고 ‘과학적’인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에 의해 의미를 상실한다는 매우 본질론적인 해석이다. 그리하여 앞서 인종을 다소간 재관

19) Fields, B. J.(1990), "Slavery, Race and Ideology in the United States," *New Left Review* 181: May/June, pp. 95-118.

20) Phizacklea, A.(1984), "A Sociology of Migration or 'Race Relation?' A View From Britain," *Current Sociology* 32: 3, p. 200.

적, 불변적인 사회과학적 범주로, 계급과는 무관하거나 동등한(혹은 선차적인) 범주로 파악한 주류 사회학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마일즈도 ‘대중적 개념(folk concept)’을 ‘객관적 인종(objective race)’으로 당연시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지적한다.²¹⁾ 그에게 있어 주된 관심은 가령 영국내 카리브 이민자 집단을 인종의 담론으로 불러내는 인종화 과정이다.²²⁾

이에 대해 또다른 일단의 좌파 학자들은 ‘인종’이 서구 자본주의 체제와 그 문제점을 비판·설명함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사회학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종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내 계급 관계를 크게 왜곡시켰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그들은 인종을 “민족성이나 계급과 같은 이른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정치적 관계의 징후”로 간주하는 계급환원주의에 반대한다.²³⁾ ‘인종적으로 구조화(racially structured)’된 현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인종의 범주가 계급과 마찬가지로의 분석적 유용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특정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종은 ‘상상의 창조물’ 이상이다. 역사·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구조화된 ‘집단적 실체’로 존재하며,²⁴⁾ 현실 자본주의 사회내 부정할 수 없는 중층 결정(overdetermination)적 효과성을 발휘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

21) Miles, R.(1982), *Racism and Migrant Labour*,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22) Miles, R.(1989), “Migration Discourse in Post-1945 British Politics,” *Migration* 6, pp. 29-53; Miles, R.(1990), “Migration, racism and ‘postmodern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19: 3, pp. 334-358.

23) Omi, M. & Winant, H.(1990),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2-3.

24) Banton, M.(1991), “The race relations problematic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 1, pp. 115-130.

종'의 범주와 그것이 지시하는 유전적 특징에 기초해 '우리'가 타자를 (무)의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일부분적 효과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인종을 단순히 허위의식으로 간주하거나(전통적 맑스주의) 완전 독립된 범주로 떼어놓는 데(인종의 주류 사회학)에 반대하면서, 이들은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계급 구성체와 인종 구성체 사이의 상호 효과성, 인종과 계급 범주 간 상호침투성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실제 서구 역사를 두고 보면, 인종주의가 자본가 계급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까지 '백인 공화국' 혹은 '인종적 국가(racial state)'의 헤게모니속으로 묶어낸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증거가 무수히 많다. 인종주의는 사회내 계급구성을 결정적으로 왜곡시켰고, 계급의식의 변혁적 힘을 크게 방해하였다.²⁵⁾ 그리하여 노동자 계급에게 사회변화의 특권을 부여한 전통 맑스주의 시각은 그 분석적·정치적 타당성에 있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인종주의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낸 역사 유물론적 설명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백인으로 규정했는가?"라는 역사적 질문은 여전히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²⁶⁾ "인종화한 계급 분파 구성체(the formation of racialised class fraction)"²⁷⁾ 혹은

25) 인종과 계급의 상호 교차성을 미국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이론적·역사적으로 면밀히 살펴본 주요 네오맑스주의 문헌으로는 Moody, K.(1988), *An Injury to All: The Decline of American Unionism*, London & New York: Verso; Roediger, D. R.(1991),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 New York: Verso; Saxton, A.(1990),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Class Politics and Mas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London & New York: Verso, 참조

26) Roediger, D. R., *Ibid.*, p. 6.

“인종적으로 구별된 계급 분파(racially demarcated class factions)”²⁸⁾와 같은 개념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내 인종의 물리적 효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들이다. 요컨대 객관적인 것으로 인지된 문화적·인종적 차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계급의 선에 덧씌워지고, 거꾸로 계급은 인종적 선을 따라 구분된다. 이렇게 보면 인종문제를 자본주의 문제로, 인종범주를 계급범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무리인 것임에 틀림없다. 인종문제가 자본주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 맺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종관계가 생산관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III. 한국의 문화연구와 ‘인종’ 개념의 새로운 접속

1. 문화연구내 ‘인종’ 개념의 이중적 배치

바로 이러한 계급/인종의 논쟁이 문화연구가 인종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지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계급주의 성향에서 출발한 영국 문화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 비로소 인종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82년 현대문화연구소에서 나온 *The Empire Strikes Back*은 인종에 관한 문화주의 연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참여학자들의 성향과 관

27) Miles, R.(1984), “Marxism versus the Sociology of ‘Race Rel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7: 2, p. 233.

28) Gilroy, P.(1982), “Steppin’ out of Babylon –Race, Class and Autonomy,” in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ed.), *The Empire Strikes Back: Race and Racism in 70s Britain*, London: Hutchinson, p. 284.

심분야, 시각에 있어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인종(주의)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분명한 문화연구적 접근법이 완성되었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²⁹⁾ 인종주의가 자본주의 발전 및 위기와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종을 계급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으로 파악한 점에서 이들 연구자들은 계급과 인종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주목한 그람시적 입장에 동조했다.³⁰⁾ 이같은 인식은 1978년 홀(S. Hall)을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이 펴낸 *Policing the Crisis*라는 책에서 이미 잘 드러난다. ‘인종’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지고 ‘도덕적 공황(moral panic)’사태로 구조화되는지 그 과정을 상호학제적으로 추적해 보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다.³¹⁾ 이 작업을 계기로 연구소내 소장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종 및 정치 그룹(Race and Politics Group)’이 탄생했으며, 그들은 보수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인종주의의 접합, 미디어를 통한 이데올로기 권력의 ‘인종화’ 담론과정을 계급과 인종의 변증법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비가시적 상태에 머물던 인종주의 현실과 인종이론을 문화연구와 접속시키는 데 있어 홀의 역할은 실로 막대했다. 그가 볼 때 인종주의는 정치경제적·이데올로기적 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만 자율적이다.

29. Brittan, A. & Maynard, M.(1984), *Sexism, Racism and Oppression*, Oxford: Basil Blackwell.

30) Brantlinger, P.(1990), *Crusoe's Footprints: Cultural Studies in Britain and America*,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147-149.

31) 홀은 인종의 화두가 페미니즘과 더불어 CCCS내 문화연구의 흐름을 바꾼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선 두 가지 문헌이 출판되기까지 연구소내에서 “무의식적 침묵”을 상대로 한 “오래고 쓰린 내부적 투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Hall, S.(1992), “Cultural studies and its theoretical legacies,” Grossberg, L., Nelson, C. & P. A.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 283.

인종주의는 계급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계급은 인종과 상호적(reciprocal) 관계를 맺는다. 그러므로 인종과 계급을 따로 떼놓기보다는 두 범주간 접합(articulation)의 측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홀의 일관된 주장이다. “인종은 계급이 ‘살아가는’ 양식(modality)이자 계급관계를 경험하는 매개체이며, 또한 계급이 접합되고 ‘다툼을 겪는’ 형식이다” 라거나, 자본의 계급 재생산과정은 “일반적으로 인종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주장³²⁾은 홀의 그람시적·상호결정론적 시각을 잘 드러낸다. 경제에 의해 오직 최후단계에서 결정되는 자본주의 사회내 인종은 이데올로기, 패권적 접합의 정치 효과성을 발휘하는 하나의 관계이며, 계급투쟁의 장이자 표적이다. 아울러 인종은 집단과 개인의 일상경험을 배치함에 있어 역사적으로 구체화된 이데올로기 양식으로 작동한다. 서구 자본주의내 변혁적 기획,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인종의 범주와 인종주의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효과성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홀에 따르면, 분석의 초점은 추상적인 인종(주의)개념이 아닌, 특정한 역사·정치·이데올로기적 국면에서 진행되는 구체적 사회실천으로서 인종관계,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인종적 정치(racial politics)’가 된다.

사회내 인종주의는 어떠한 구체적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가? 인종은 계급 등 사회내 여타 관계적 경험들과 어떻게 접합되는가? 인종적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국가는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국

32) Hall, S. et al.(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p. 394. 인종/계급에 관한 홀의 그람시적 입장은 Hall, S.(1986),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0: 2, pp. 5-27에 보다 더 잘 나타나 있다.

가 인종주의(state racism)'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매개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분석의 핵심대상이 된다. 홀의 경우처럼 소수 이민자 집단이 어떻게 사회적 문제거리로 만들어지고 결국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는지를 보고자 할 때도, 연구자들은 미디어 표상(representations)과 담론, 정체성 구성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추상적 이데올로기는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사회내 담론 과정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는 힘을 획득한다. 그리하여 인종주의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이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구조주의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스크린(Screen)》지를 중심으로 특히 두드러졌다. 예컨대 코트라즈(I. Kotlarz)는 디즈니를 포함한 미국 할리우드 만화영화가 '흑인'을 어떻게 동질적 타자(Other)로 그려내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으며,³³⁾ 베일리(C. Bailey)는 영화 'Something Wild'에서 '흑인'이 '백인'과 차이나는 원초적인 그리고 '동물같은(animal-like)' '그것(Thing)'으로 재현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³⁴⁾ 게인즈(J. Gaines)는 보다 이론적 관점에서 서구 페미니즘 영화이론에 내포된 백인 특권적 시선을 해체시키고자 했다.³⁵⁾

미디어는 인종적 표상과 담론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인종화된 정체성/몸에 대한 감시와 규율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권력기계에 해당된다.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인종화된 정체성과 시선이 고정되고, 인종화된 육체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미디어 체제가 인종주의적 지식과 느

33) Kotlarz, I.(1983), "The Birth of a Notion," *Screen* 24: 2, pp. 21-29.

34) Bailey, Cameron(1988), "Nigger/Lover: The Thin Sheen of Race in 'Something Wild,'" *Screen* 29: 4, pp. 29-40.

35) Gaines, J.(1988), "White Privilege and Looking Relations: Race and Gender in Feminist Film Theory," *Screen* 29: 4, pp. 12-28.

낌 구조, 정체성을 생산해내는 방식을 비판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문화 연구자들의 당연한 몫이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실제 사회·정치적 맥락에 의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연구가 인종이론과 접합을 이룬 1980년대 서구 사회내 인종주의 정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대처 정권하에 이루어진 ‘억압적 현대화(repressive modernisation)’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의 심화를 가져왔다. 억압적 인종주의 문화가 일상적 생활방식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 유럽 제국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³⁶⁾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가장한 ‘신인종주의(new racism)’ 정치가 새로운 재편의 과정에 있던 서구 자본주의 사회내 보편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지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인종주의에 대한 문화연구적 실천은 충분히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정치적이었다. 아울러 이민자 집단이 범죄화(criminalization)되고, 이러한 ‘범죄의 인종화’를 통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법 질서(law and order)의 보수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문화연구의 상호학제적 특성을 크게 부각시켰다.³⁷⁾

36) 시바난단(A. Sivannandan)은 이와 같은 인종주의의 범유럽적 확장에 대해, ‘자민족 중심적 인종주의(ethnocentric racism)’가 ‘유럽중심적 인종주의(Eurocentric racism)’로, 개별 국가의 차별적 인종주의가 ‘공동 시장 인종주의(common market racism)’로 통합되고 있다고 풍자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37) 이 문제에 관한 주요한 논문으로 Braham, R.(1982), “How the media report race,” Gurevitch, M. et al.(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268-286; Bridges, I. & L. Fekete(1985), “Victims, the ‘urban jungle’ and the new racism,” *Race & Class* 27: 1, pp. 45-62; Jefferson, T.(1988), “Race, crime and policing: Empiric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16, pp. 521-539; Taylor, H. & C. Dozier(1983), “Television violence, African-Americans,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Black Studies* 14: 2,

이처럼 미디어 텍스트를 통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국가 정치의 접합에 주목한 문화연구적 관심은 1990년대에 들면서 '인종 집단'의 미디어 수용과 활용, 저항의 모습을 확인하는 노력으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과정으로서 '인종화'나 정치적 현실로서의 인종주의가 아닌, 분석적 범주로서의 인종이다. '인종'은 계급, 성과 더불어 차이나는 정체성 집단이나 '해석적 공동체'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변화에는 1990년대 두드러진 후기구조주의적 성향, '포스트(post)'주의적 시각, 맑스주의 이론의 쇠퇴,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내 인종적 문화정치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계급 개념은 더 이상 분석이나 혁신적 전략 모색에 있어 합당치 않은 것으로 기각된다. '특권화'된 주체로서 계급이 거부되는 대신에, 성과 세대, 민족, 인종이 '민주적 투쟁의 다원성'을 내세운 '신사회운동' 또는 '정체성의 정치'의 이름으로 강조된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 텍스트도 개방된 다의적 체계로, 일방적 억압의 수단이 아닌 역능적 운동과 정치의 장으로 재해석된다. 만약 계급과 인종을 둘러싼 논쟁이 초기 영국 문화연구에 인종의 화두를 끼어넣은 계기가 되었다면, 바로 이러한 복합적 흐름들이 전지구적으로 탈영토화한 문화연구에 인종담론(이론)을 재배치시킨 조건이 된다. 아울러 푸코가 말한 변환의 '비담론적'·역사

pp. 107-136; Entman, R. M.(1990), "Modern Racism and the Images of Blacks in Local Television New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 4, pp. 332-345; Murray, M.(1986), "Anti-racists and other demons: the press and ideology in Thatcher's Britain," *Race & Class* 27: 3, pp. 1-19; Ertema, J. S.(1990), "Press Rites and Race Relations: A Study of Mass-Mediated Ritual,"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4, pp. 309-331 참조

적 조건과 관련해서는, 1980년대에는 인종주의 정치의 득세를, 그리고 1990년대에는 계급주의 정치의 후퇴를 각각 들 수 있겠다.

1990년대 미디어·문화 연구는 영국에서 미대륙으로, 거시에서 미시 수준으로, 텍스트에서 수용자 차원으로, 현실에서 이론 층위로, 상호 학제적 횡단성에서 분과적 독립영토로 옮겨간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인종은 계급이나 세대, 성, 지역, 민족과 더불어 수용자 개인·집단별로 차이가 나는 해독과 활용을 가져올 수 있는 변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인종적 차이에 따라 미디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나 상식으로 간주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증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며, “주류 영화 관객들이 문화제품에 대해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전혀 지니지 못한다고 고집하는 미디어 수용자 연구의 지배적 방법론”과 달리 흑인여성들이 영화 ‘The Color Purple’을 적대적으로, 반인종주의적으로 읽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보보(J. Bobo)의 연구³⁸⁾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브라운과 슐츠(J. D. Brown & L. Schulze)도 인종이 성과 더불어 마돈나(Madonna) 뮤직 비디오에 대한 수용자 해석을 어떻게 차이나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했으며, 주크(K. B. Zook)의 경우에는 미국 계토내 흑인들이 랩 음악적 형식을 이용해 자신들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표현해내는 인종의 문화정치적 양상에 보다 주목하였다.³⁹⁾ “계급과 성, 인종, 세대, 개인적 역사

38) Bobo, J.(1995), “The Color Purple: Black Women as Cultural Readers,” in Dines, G.& J. M. Humez(eds.), *Gender, Race and Class in Media*, Thousand Oaks & London: Sage, pp. 52-60.

39) Zook, K. B.(1992), “Reconstructions of Nationalist Thought in Black Music and Culture,” in Garofalo, R.(ed.), *Rockin' the Boat: Mass Music & Mass Movements*, Boston: South End Press, pp. 255-266. 랩 음악에서부터 스파이크 리(Spike Lee)를 관통하는 반패권주의적 흑인 문화정치에 대해서는 Kellner, D.(1995), *Media & Culture*, London

등에 따른 수용자의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경험이 동일 텍스트에 대한 차이나는 해석을 낳는다”⁴⁰⁾라고 했을 때, 글레드힐(C. Gledhill)은 현실적 거시 정치로부터 소외된 채 의미론적 미시 정치에 갇힌 문화 연구의 ‘당연시된 진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2. 한국 문화연구내 인종 담론의 배치도

‘인종’은 사회·역사적 상황 변화와 지식 담론의 패러다임적 전환, 그리고 새로운 정치전략의 모색 등 다양한 조건들이 중층적으로 맞물리면서 문화연구내에 새롭게 배치되었다. 1990년대 후반 국내 문화연구자들의 글쓰기에서 간혹 인종이 발견될 때, 이를 바로 이러한 변환의 직접적 효과로 보는 것이 옳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연구내 ‘인종’에 대한 논의는 인종주의 현실비판과 수용자 분석 범주라는 이중적 관심에서 촉발되었다. 최근 후자 쪽으로 상당한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해 현실과 이론, 텍스트와 수용자 간 균형잡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찰적 목소리도 만만찮다. ‘계급의 후퇴’ 이후 성이나 세대, 인종 등 새로운 정체성의 중요성과 분절성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적지않다.⁴¹⁾ 서구 사회와 그 문화 배치적 특

& New York: Routledge, pp. 157-197 참조

40) Gledhill, C.(1988), “Pleasurable Negotiations,” in Pribram, E. U.(ed.), *Female Spectators*, London: Verso, p. 246.

41) 결국 탈중심적·이산적 힘들을 체계변화를 가능케 할 효과적 힘으로 묶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대두되는바, 헵디지(D. Hebdige) 같은 경우는 “단편들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의 진보적 블록으로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편적 가치나 목표가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단정해버리기도 한다. Hebdige, D.(1990), “After the Masses,” in Hall, S. & M. Jacques(eds.)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 92.

성을 계급문제로 푸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인종이나 성의 문제로 환원해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로스버그도 계급이나 인종적 '차이' 그 자체가 아닌,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지고 이들간 혼성(hybridity)이 빚어지며, '계급의 인종화' 또는 '인종의 계급화', 즉 계급과 인종간 사회적 접합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질 것을 고집한다.⁴²⁾ 특정 범주에 기초한 일과암적 분석보다는 다층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앞선 홀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요컨대 능동적 수용자론의 과잉현상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현실과 미디어, 수용자간 연결된 고리를 정교한 이론으로 새로이 가로지를 필요가 있다는 데 대다수 문화연구자들이 동의한다.

이처럼 급격한 이론적 변환의 상황에서 내부 성찰의 움직임이 동시에 목격되는 서구 문화연구적 경향성에 비춰볼 때, 한국 문화연구 영토내 인종(주의) 논의는 말 그대로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홀과 그로스버그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이론화와 정치화·맥락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사실 국내 문화연구자들의 글에서 인종의 범주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그리하여 인종주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능동적 수용자 연구가 보여준 인종이라는 구체적 범주에 기초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 인종, 국가,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정치적 충성 등의 차원에서 분열되어 있다"⁴³⁾라거나 하위문화 구성에는 계급외에도 성별, 연령,

42) Grossberg, L.(1997), *Bringing It Back Home: Essays on Cultural Studies*,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43-373. 그로스버그는 이처럼 차이의 생성 그리고 그 혼성적 절합에 주목하는 자신의 이론을 기존 '차이의 이론'과 다른 '타자성의 이론(theories of otherness)'으로 이름붙인다.

43) 정재철(1998),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연구」, 정재철 편, 『문화연구 이론』, 한나래,

인종 등 “사회구성의 다양한 양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⁴⁴⁾는 식으로 이미 자명한 명제들 내에서 일회적으로 언급된다. 이는 한국 문화 연구 역사 자체의 일천함뿐만 아니라 인종의 범주적·이론적 유용성에 관한 국내 연구자들의 무관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연유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국 문화연구내 인종담론은 성이나 세대의 담론과 전혀 양상을 달리한다. 문화연구의 소개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페미니즘이나 신세대 연구와 달리, 인종에 대한 이론적 탐색이나 실증적 분석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성이나 세대와 같은 비계급적 요소가 수용자의 문화 소비, 미디어 해독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변함없는 상식’을 강조할 때 이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추가될 따름인 것이다.

결국 ‘인종’은 한국 사회내 실재하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개념틀이나 미디어 문화 소비양식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서구 문화 이론의 단순이식적 징후라는 혐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내재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서구의 포스트주의적 이론 경로를 따라 단순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와 그 소비양식을 분석함에 있어 인종의 개념이 왜, 어떻게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없다는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국내 문화연구가 “이데올로기적 접근방법에서 벗어나서 사회적·문화적 존재로서의 수용자가 텍스트의 지배적 의미에 저항하고 스스로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밝히면서, 성, 계급, 인종 등에 기초한 ‘해석공동체(inter-

93쪽.

44) 김창남(1994), 「대중의 문화실천과 대중문화의 저항성」, 《언론과 사회》 4호, 63쪽.

pretive communities)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⁴⁵⁾는 주창운의 지적은 따라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문화연구가 해석공동체를 계급과 성, 인종 등에 기초한 단수적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환원주의에 빠지거나 해석의 복합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앞선 그로스버그의 견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주창운의 경우에도 인종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로 발전하지는 못한다. 나름의 의미있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한국사회내 구체적 맥락과 접합시키지 못함으로써, 문화연구는 계급, 성, 인종을 미디어 텍스트 해독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즉각적 지식’을 궁극적으로 재확인⁴⁶⁾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러한 한계는 문화연구가 과도하게 인종, 성의 범주에 집착하면서 계급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렸다는 송승철의 비판⁴⁷⁾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실종된 계급의 정치·분석적 의미 회복, 계급과 인종의 상호교차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문화이론 일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논의가 한국이라는 구체적 문맥과는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의) 추상적 이론에 표적 맞춘 비판은 인종(주의)관련 문화연구가 부재한 우리의 현실과 대비될 때 매우 허전하게 들린다. 한편 심광현은 계급적대가 인종차취와의 결합을 통해 유지되며, 따라서 문화연구는 인종 갈등과 내적으로 연계된 계급투쟁의 혼합된 궤적을 추적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는다고 주장한다.⁴⁸⁾ 노

45) 주창운(1998),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의 해석적 위치」, 《언론학보》 42호, 164쪽.

46) 주창운(1997), 「문화연구, 어디로 가나」, 《현대사상》 4호, 68-84쪽.

47) 송승철(1997), 「위크숍: 문화연구의 위치와 세계화, 지정토론과 답변」, 《언론과 사회》 18호, 142쪽.

48) 심광현(1998),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144-154쪽.

동자의 삶이 계급 관계뿐만 아니라 인종관계에 의해 중층 결정된다는 점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종이론을 한국 사회의 구체적 문맥이나 미디어 현상과 접속시키지 못하는 점에서는 앞선 두 사람의 약점을 공유한다. 세계 체제와 국민 국가내 계급착취는 성적·인종적 억압의 문제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일반적 결론⁴⁹⁾에서 한 발자욱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론적 명제의 상투적 반복 차원이 아닌, 인종차별이 민족주의 정치나 계급 억압과 어떻게 접합하고, 인종주의는 한국 사회내 어떻게 권력으로 행사되며, 그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따져보려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IV. 나가면서: 인종주의 해체의 급진적 문화정치 기획⁵⁰⁾

지금까지 한국 문화연구 영토에 인종이라는 말이 배치하게 된 경로를 계보학적으로 살펴보았다. 분명한 사실은 인종에 대한 최근 관심이

49) 이매뉴얼 윌러스틴,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나종일·백영경 역, 창작과 비평사, 1994, 116쪽.

50) 본 논문에서는 국내 문화연구에 있어서도 인종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그 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인종주의가 식민주의 및 종속적 근대화를 거쳐 어떻게 한국 사회로 유입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민족주의와 접합되면서 대중의 무의식을 구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부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서구 문화이론의 단순이식적 징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이 글에서 지식 영토내 ‘인종’ 개념의 전이과정을 추적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한국 사회내 ‘인종주의’는 분명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이 관심가져야 할 주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본인은 별도의 논문에서 이론화 및 분석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하는 삶에 대한 밀도 높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바깥/서구/중심 사회 주도적 이론의 단순 외삽된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 문화연구에서 인종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적 정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다. 비계급적 사회관계와 수용자의 해석적 능동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언급될 따름이며, 관련이론이나 구체적 문제와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과 유리되고 현실에서 절맥된 '인종'의 공허한 담론은 결국 한국 문화연구의 실천적 허약성, 이론적 식민성을 드러내는 징후가 된다. "컨텍스트의 뒷을 보지 못하고 텍스트의 단맛에 몰입"하고, "삶의 구체적 정황에서 면제된 인공의 공간을 상정한 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 논의에 자족하는 식민지적 글쓰기의 모습⁵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이다. 이제 문화연구자들은 계급이나 세대, 성, 민족 등의 범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종'의 개념이 1990년대 후반 한국문화의 비판·생성적 작업수행에 어떤 정치적·이론적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만약 인종이 계급이나 지역, 세대, 성과 달리 한국 사회와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담론은 우리의 문화연구적 지도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²⁾

51) 김영민(1996),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65-66쪽.

52) 이 점과 관련하여, 본인의 글을 읽은 익명의 평자는 '인종'의 문제는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데 별다른 유용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한국은 민족(인종/공동의 언어/문화)공동체이며, "인종간의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순수 인종/민족 공동체로 이해하는 시각이 과연 다문화시대에 유효한지 의문을 갖고 있으며, 비록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우리 속의 그들/타자'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 글에서 본인은 한국 사회를 인종관계의 틀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개념의 역사에 대한 계보학적 분석과 인종주의 담론/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체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인종 개념의 유용성을 고집한다. 다만 수용자의 능동성 확인을 위한 페티시(fetish)로서의 인종이 아닌, 억압적 체계의 해체를 위해 홀을 비롯한 초기 문화연구자들이 강조한 계급, 성등과 중층 결정(overdetermination)된 개념틀로서의 인종,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한국 사회에 현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성향 체계, 담론적 권력으로서의 인종주의에 새로운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⁵³⁾ 문화연구자들은 텅빈 인종개념이 아닌 사회내 구체적 인종주의, 인종화의 문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종이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범주인 것과 같이, 인종주의라는 당대의 핵심 현상 또한 서구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특이성(historical specificity)’과 필수적으로 연결된다.⁵⁴⁾ 인종주의는 바깥/타자를 내부/동일자로부터 분할(partage)시키고자 하는 유럽의 특수한 인식틀로, “특정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장소에 필수적으로 머물러야 한다”라고 지시한다.⁵⁵⁾ 이러한 인종주의 이데올로기, 인종주의 지식에는 차이에 대한 야망없음, 나아가 ‘타자(Other)’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다.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폄하, 중요도에 기초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가고자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성향 체계가 바로 인종주의인 것이다.⁵⁶⁾

53) 텍스트와 수용자, 계급과 인종의 접합적 양상에 주목한 연구로 Jhally, S. & Lewis, L.(1992), *Enlightened Racism: The Cosby Show, Audiences, and the Myth of the American Dream*, Boulder &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참조

54) King, A.(1991), "Spaces of Culture, Spaces of Knowledge," in King, A. D.(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 7.

55) Friedman, J.(1994), *Cultural Identity and Global Process*, London &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 62.

56) 몰리와 로빈스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이용해 대중문화에 나타난 미국의 일본에 대한 ‘테크노-오리엔탈리즘(techno-orientalism)’적 태도를 매우 흥미롭게 보여준다.

가령 아프리카는 “문명이라는 플러스 개념에 대한 마이너스 개념, 백인 규범에 대한 흑인의 타자성, 이성과 문화라는 천사에 대한 적대적 악마의 이미지”⁵⁷⁾로 흡수되며, 이를 통해 유럽의 집단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성향(disposition)이 의도되지 않은 규칙성과 ‘생산적 능력(capacities generatrices)’을 갖듯이, 인종주의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자를 특정 방식으로 보고 말하도록 함으로써 그 억압적 힘을 행사한다. 그리고 바로 이처럼 동일자/타자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타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다루는 기식들을 생성하는 기계 역할을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가 만화, 소설을 비롯한 전통적 인쇄매체로부터 이어받는다. 지식체계, 이데올로기로서의 인종주의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담론화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⁵⁸⁾ ‘진’의 담론’ 없는 권력행사를 생각할 수 없으며, 인종 지식과 인종적 국가, 인종주의 담론은 항상 함께 한다. 이러한 인종주의가 자본 및 미디어의 전지구화 과정과 겹치면서 탈장소화하여 급속히 확장된다. ‘백인/비백인(white/not-white)’의 문제 설정을 구성하는 인종주의가 ‘동일자-타자’ 구분을 가져오는 오리엔탈리즘적 신념 체계와 접합하면서 일종의 세계 보편적 인식틀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⁵⁹⁾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며, 인종적으로 설정된 범

Morley, D. & Robins, K.(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147-173.

57) 빌 에쉬크로프트·개레스 그리피스·헬렌 티핀/ 이석호 역(1996),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259쪽.

58) Van Dijk, T. A.(1991), *Racism and the Pres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6-8.

59) 윌러스틴은 인종주의가 “현존하는 ‘세계적 사회체계(international social structure)’

주들간의 극복할 수 없는 상징적 경계구성을 통해 작동하는 인종주의는 ‘우리’의 인종화한 타자에 대한 ‘인식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의 형태로 나타난다.⁶⁰⁾ 특히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사회에서 인종주의는 ‘흑인’에 대한 비하적 태도와 더불어, 그 반대편에 있는 유럽 백인에 대한 ‘닭음의 무의식적 열정’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띤다.⁶¹⁾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을 통해 길로이(P. Gilroy)가 ‘영국과 영국적인 것의 병적인 찬양속에서 흑인은 체계적으로 배제된다’라고 지적했을 때,⁶²⁾ 그러한 경향은 민족/인종적 순수성의 찬미 속에 타자뿐만 아니라 경계상의 ‘혼성적인 것(혼혈아)’까지 배제시키는 ‘우리’의 경험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사회내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미디어내 ‘표상적 인종주의(representational racism)’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본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억압 현실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TV프로그램에서부터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만화책, 교과서, 광고 등에서 이중적 인종주의 권력의 미시적 작동을 확인하기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동그란 눈에 두툼한 입술, 그리고 긴 뼈다귀를 코에 낀 ‘아프리

를 유지하는 활동 그 자체”이며, 따라서 반인종주의는 바로 곧 반체제운동의 핵심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Wallerstein, I.(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0; Wallerstein, I.(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0) Hall, S.(1996), “New ethnicities,” in Morley, D. & K. H. Chen(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 445.

61) 이와 관련하여 유선영은 이를 서구 우월주의, 인종적 열등감, 자기 비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유선영(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18호, 81-122쪽.

62) Gilroy, P.(1986),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London: Hutchinson.

카 토인'의 이미지는 보수적 《조선일보》나 진보적 《한겨레신문》에서 동시적으로 발견된다.⁶³⁾ '깜둥이'라는 말은 한국사회내 인종적 담론 질서의 지배적 기호이다. 한국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무의식에 깔린 이와 같은 흑·백의 이분법적 관념 체계,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덧쓰워진 '황인종의 이름'을 벗겨내는 문화연구는 정치성과 맥락성, 이론성, 상호학제성, 자기성찰성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⁶⁴⁾ 인종적 기표가 만들어지고 그 기의가 고정되는 과정, 즉 미디어 기제를 통한 '인종화'의 담론 과정을 한국 사회라는 구체적 맥락하에서 드러내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바로 문화정치학으로서의 문화연구인 것이다.⁶⁵⁾

서문에서 미디어 인종주의 비판이 문화연구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한국적 문맥하에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내 인종주의 문제는 그 현실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나 실증적 분석이 절대 부족하다. 인종주의라는 현실 문제에서 출발해 이론화의 우회로를 거쳐 현실로 되돌아오는 문화연구 실천이 과잉이 아닌 과부족의 상태인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혹은 텍스트 바깥에서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유럽 중심의 보편화된 이데올로기를 분석·비판·해체하는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문화 정치적이며 또한 문화 이론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다. 한국이라는 '상상의

63) 1997년 8월 22일 《조선일보》 '광수일기'와 1998년 12월 29일 13면 '찰칵'란 참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화한 표상이 결코 일회적 에피소드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64) 로렌스 그로스버그(1997), 「문화연구,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 《현대사상》 4호, 170-210쪽.

65) Grossberg, L.(1996), "Identity and Cultural Studies: Is That All There Is?," Hall, S. & P. Du Ga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 98.

공동체'를 떠받치는 인종주의 체계와 미디어를 통한 그 구체적 재연 방식들을 드러내고 불안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해체시키려는 노력은 이론과 역사성 부재의 이중위기에 빠진 국내 문화연구를 '급진적으로 재배치(radically relocate)'시키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인종주의가 세계 보편화된 이데올로기, 담론 권력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피스크(J. Fiske)는 인종주의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비인종적 인종주의(nonracist racism)'로 이름붙인 바 있다.⁶⁶⁾ 인종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현실이며, 단지 이야기되지 않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인종주의의 '차별적 특수성'을 드러내 해체시켜 가는 노력은 말 그대로 문화연구에 '실재(the real)'를 끼워넣는 일에 다름아니다.

66) Fiske, J.(1994), *Media Matters: Everyday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7-39. 국내에서 텍스트 다의성, 수용자 능동성의 극단으로 치우침으로써 문화연구의 탈정치화·탈맥락화를 가져왔다고 지목되는 피스크가 텍스트 표상이나 매개, 인종주의 체계, 나아가 인종과 계급, 성의 접합관계에 분석적 초점을 되돌리고 있음에 주목하자.

☐ 참고문헌

- 고길섭(1997), 「문화분석 글쓰기론: 생성-비판적 실천과 탈 현대적 지도 그리기」, 《문화과학》 12호, 145-160쪽.
- 김영민(1996),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 김창남(1994), 「대중의 문화실천과 대중문화의 저항성」, 《언론과 사회》 4호, 54-80쪽.
- 로렌스 그로스버그(1997), 「나의 문화연구: 정의, 기획, 그리고 지구화의 문제」, 《언론과 사회》 18호, 125-137쪽.
- _____(1997), 「문화연구,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 《현대사상》 4호, 170-210쪽
-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역(1990),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나남.
- _____/ 이정우 역(1993), 『담론의 질서』, 새길.
- _____/ 박정자 역(1998),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 빌 애쉬크로프트, 개레스 그리피스, 헬렌 티핀/ 이석호 역(1996),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 심광현(1998), 『탈근대 문화정치와 문화연구』, 문화과학사.
- 유선영(1997), 「황색 식민지의 문화정체성」, 《언론과 사회》 18호, 81-122쪽.
- 이구표·이진경 외(1997), 『프랑스 철학과 우리』, 당대.
- 이매뉴얼 윌러스틴/ 나종일·백영경 역(1994),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작과 비평사.
- 정재철(1998),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연구」, 정재철 편, 『문화 연구 이론』, 한나래, 89-109쪽.
- 주창윤(1997), 「문화연구, 어디로 가나」, 《현대사상》 4호, 68-84쪽.

- 주창윤(1998), 「텔레비전 드라마 수용자의 해석적 위치」, 《언론학보》 42호, 163-199쪽.
- 펠렉스 가타리/ 윤수중 역(1998), 『분자혁명: 자유의 공간을 향한 욕망의 미시정치학』, 푸른숲.
- Agger, B.(1992), *Cultural Studies as Critical Theory*, London & Washington, DC: The Falmer Press.
- Bailey, Cameron(1988), "Nigger / Lover: The Thin Sheen of Race in 'Something Wild'," *Screen* 29: 4, pp. 29-40.
- Banton, M.(1991), "The race relations problematic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 1, pp. 115-130.
- Bennett, T.(1992), "Putting Policy into Cultural Studies," in L. Grossberg, C. Nelson. & P.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23-37.
- Bobo, J.(1995,) "The Color Purple: Black Women as Cultural Readers," in Dines, G. & J. M. Humez(eds.), *Gender, Race and Class in Media*, Thousand Oaks & London: Sage, pp. 52-60.
- Braham, R.(1982), "How the media report race," Gurevitch, M. et al (ed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268-286.
- Brantlinger, P.(1990), *Crusoe's Footprints: Cultural Studies in Britain and America*, New York & London: Routledge.
- Bridges, I. & Fekete, L.(1985), "Victims, the 'urban jungle' and the new racism," *Race & Class* 27: 1, pp. 45-62.
- Brittan, A. & Maynard, M.(1984), *Sexism, Racism and Oppression*, Oxford: Basil Blackwell.
- Entman, R. M.(1990), "Modern Racism and the Images of Blacks in Local Television New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

4, pp. 332-345.

Ertema, J. S.(1992), "Press Rites and Race Relations: A Study of Mass-Mediated Ritual,"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4, pp. 309-331.

Fields, B. J.(1990), "Slavery, Race and Ideology in the United States," *New Left Review* 181: May/June, pp. 95-118.

Fiske, J.(1994), *Media Matters: Everyday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Forbes, J. D.(1990), "The manipulation of race, caste and identity," *The Journal of Ethnic Studies* 17: 4, pp. 1-51.

Friedman, J.(1992), *Cultural Identity and Global Process*, London &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Gaines, J.(1988), "White Privilege and Looking Relations: Race and Gender in Feminist Film Theory," *Screen* 29: 4, pp. 12-28.

Gilroy, P.(1982), "Steppin' out of Babylon-Race, Class and Autonomy," in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ed.), *The Empire Strikes Back: Race and Racism in 70s Britain*, London: Hutchinson, pp. 276-314.

_____(1986),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London: Hutchinson.

_____(1992), "Cultural Studies and Ethnic Absolutism," in L. Grossberg, C. Nelson & P.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187-298.

Grossberg, L.(1996), "Identity and Cultural Studies: Is That All There Is?," Hall, S. & P. Du Ga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p. 87-107.

_____(1997), *Bringing It Back Home: Essays on Cultural Studies*, Durham

-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Jhally, S. & Lewis, L.(1992), *Enlightened Racism: The Cosby Show, Audiences, and the Myth of the American Dream*, Boulder &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 Juan, E. S.(1992), *Racial Formations/Critical Transformations*, New Jersey & London: Humanities Press.
- Hebdige, D.(1990), "After the Masses," in Hall, S. & M. Jacques(eds.)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76-93.
- Hall, S. et al.(1978), *Policing the Crisis: Mugging, the State and Law and Order*, London: Macmillan.
- Hall, S.(1986), "Gramsci's relevance for the Study of race and ethnicity,"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10: 2, pp. 5-27.
- _____(1992), "Cultural studies and its theoretical legacies," Grossberg, L., Nelson, C. & P. A. Treichler(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pp. 277-286.
- _____(1996), "New ethnicities," in Morley, D. & K. H. Chen(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441-499.
- Jefferson, T.(1988), "Race, crime and policing: Empirica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 16, pp. 521-539.
- Kellner, D.(1995), *Media & Cul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King, A.(1991), "Spaces of Culture, Spaces of Knowledge," in King, A. D.(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System*, Bingham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p. 1-19.
- Kotlarz, I.(1983), "The Birth of a Notion," *Screen* 24: 2, pp. 21-29.

- McRobbie, A.(1994), *Postmodernism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 London: Routledge.
- Miles, R.(1982), *Racism and Migrant Labour*, London: Routledge & Kagan Paul.
- _____(1984), “Marxism versus the Sociology of ‘Race Rel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7: 2, pp. 217-237.
- _____(1989), “Migration Discourse in Post-1945 British Politics,” *Migration* 6, pp. 29-53.
- _____(1990), “Migration, racism and 'postmodern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19: 3, pp. 334-358.
- Moody, K.(1988), *An Injury to All: The Decline of American Unionism*, London & New York: Verso.
- Morley, D. & Robins, K.(1995), *Spaces of Identity: Global Media, Electronic Landscapes and Cultural Boundar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p. 147-173.
- Murray, M.(1986), “Anti-racists and other demons: the press and ideology in Thatcher's Britain,” *Race & Class* 27: 3, pp. 1-19.
- Omi, M. & Winant, H.(1990),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80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Phizacklea, A.(1984), “A Sociology of Migration or ‘Race Relation?’ A View From Britain,” *Current Sociology* 32: 3, pp. 199-218.
- Rex, J.(1986), “The role of class analysis in the study of race relations —a Weberian perspective,” in Rex, J. & D. Maxon(eds.),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4-83.
- Robinson, C. J.(1983), *Black Marxism: The Making of the Black Radical Tradition*, London: Zen Books.

- Roediger, D. R.(1991),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London & New York: Verso.
- Saxton, A.(1990), *The Rise and Fall of the White Republic: Class Politics and Mass Culture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London & New York: Verso.
- Smith, M. G.(1990), "Pluralism, race and ethnicity in selected African countries," in Rex, J. & D. Mason(eds.),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87-225.
- Taylor, H. & Dozier, C.(1983), "Television violence, African-Americans,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Black Studies* 14: 2, pp. 107-136.
- Van Dijk, T. A.(1991), *Racism and the Pres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Wallerstein, I.(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80.
- _____(1991),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ook, K. B.(1992), "Reconstructions of Nationalist Thought in Black Music and Culture," in Garofalo, R.(ed.), *Rockin' the Boat: Mass Music & Mass Movements*, Boston: South End Press, pp. 255-266.